

모둠별 활동 결과 보고서

모둠 이름	7 모둠
활동 제목	
역할 분담 결과	<p>이세현: 5점 이정행: 5점 이효진: 5점 악릉우: 5점 오맹선: 5점 왕경환: 5점 위문봉: 5점</p>
모둠별 활동 결과	<p><input type="checkbox"/> 잘된 점:</p> <p>이세현: 그동안 아무생각 없이 사용했던 한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다.</p> <p>이정행: 한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중국인 학우들과 함께 한글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었다.</p> <p>이효진: 잘못 알고 있었던 한글에 대한 지식을 이번 기회에 바르게 잡을 수 있어 좋았다.</p> <p>악릉우: 한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한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p> <p>오맹선: 한글을 사용할 수 있어도 한글에 대한 역사는 모르고 있었는데 덕분에 알게되어 좋았다.</p> <p>왕경환: 중국과 한국 한자권 문화로 비슷한 단어가 많아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p> <p>위문봉: 한글의 구조를 공부하였으며, 한글을 사용할 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재밌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선할 점:</p> <p>이세현: 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한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어 아쉬웠다.</p> <p>이정행: 한글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p> <p>이효진: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싶었으나, 시간 상의 이유로 깊게 들어가지 못해 아쉬웠다.</p>

	<p>악릉우: 한글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카드뉴스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p> <p>오맹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 아쉬웠다.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더욱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내놓았을거란 자신이 있다.</p> <p>왕경환: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아쉽다.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p> <p>위문봉: 학교수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다보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아쉽다.</p>
--	--------------------------------------------------------------------------------------------------------------------------------------------------------------------------------------------------------------------------------------------

<주요 사진 자료>

1.

이정현

영화 ‘나랏말싸미’처럼 승려 신미가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

1. 신미는 허구인물인가?
→ 답은 (X), 실록에도 나오는 실존 승려

“중(僧) 신미(信眉)를 우국이세(祐國利世) 혜각존자(慧覺尊者)로 삼고...”(문종 실록 2권)

문종이 즉위한 1450년 7월 6일의 기록이다. ‘우국이세 혜각존자’란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 지혜를 깨우쳐 반열에 오른 분’이란 의미다. 영화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신미대사는 이처럼 실록에도 버젓이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

2. 신미가 한글 창제 주도했는가?
→ 답은 (X), 세종이 “친히” 창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언후예야 글자를 이루었다. (중략)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출처: <http://factcheck.snu.ac.kr/v2/facts/1756>

2.

악릉우

위대한 대본 개혁 10 월 9 일이 한국의 날로 제정되었다.

- 1.조선 왕조의 네 번째 군주인 세종대왕(1397-1450)은 1443년 '지운민정인'(현 한국인)을 창설하는 데 앞장섰고, 1446년 대중에게 공개되어 한국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 2.한국의 날은 처음 10 월 29 일로 지정되었으며, "훈민정음"에 기록 된 날 짜가 발견 될 때까지는 아니었고, 계산 후 한국의 날이 20 일 동안 10 월 9 일까지 진행되었다고 추측했다.
- 3.한국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서점 체인인 교보서점이 제7회 필기 경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8,520 명이 대회에 등록했으며 전염병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는 전년 대비 각각 93 %와 35 % 증가했습니다. 경쟁은 최종 우승 작품을 결정하기 위해 4 라운드의 심사를 통과했다.



3.

왕경환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있다.

10 월 9 일 한글날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제정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다.

한글날은 한글 반포일을 기념하는 날로《세종실록》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의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9 월중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위문본



1446년 10월, 조선왕조 제4대 군주인 세종대왕 이도 「훈민정음」을 반포하여 한글의 탄생을 알렸다.

'훈민정음'은 표음문자로 17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이뤄져 있다. 17개의 자음자는 구형과 설위 발음기관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며, 발음별로 치음, 설음, 순음, 치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현대 음성학적 분류와 거의 일치한다. 또 소리의 청탁에 따라 자음을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나누고, 11개의 모음 중 3개의 기본 모음이 있는데, 이들은 옛사람이 생각하는 우주 '하늘, 땅, 사람'의 생성 순서에 따라 창조되었고, 다른 모음들은 이 3개의 기본 모음에 따라 창조되었다. 이 28자는 560년에 걸쳐 3 자음과 1자음이 탈락했고 북한과 남한에서는 24자음과 모음을 사용한다.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7만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이 글자들로 7억 개의 어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글자를 구사한다.

5.

오맹선

한글 = 한국어?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한글/문제점 및 논쟁 문서의 4.5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르다. 한국어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언어고, 한글은 약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문자로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한글날에 외래어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한자어와 외래어는 한국어 어휘의 일종이므로 문자인 한글과는 관련이 없다. 맞춤법 역시 강조하는 이들이 많으나 이 역시 한국어의 문제지 한글이라는 문자와는 무관하다. 또 맞춤법을 지키는 것은 글쓰기의 기본이므로 한글날에만 맞춤법을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한글 창제와 현대 한국어 맞춤법은 시기상 별 관련이 없다. 현재 우리가 쓰는 맞춤법은 1933년에 확립되었는데, 한글이 창제된 지 약 500년 정도 지났을 때이다. 맞춤법만을 따질 경우 주시경 선생이나 조선어학회를 찾는 쪽이 좋을 것이다.



출처: <https://namu.wiki/w/%ED%95%9C%EA%B8%80%EB%82%A0#s-4.2>

6.

이효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사업을
은밀히 추진한 이유**

1. 중화 사상에 젖어 있고, 한자/한문이 기득권 유지의 주요 수단
이 되어 있었던 사대부들이 새로운 문자를 환영할 리 없었다.
2.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글 창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 뻔히 예상되었을 것이다.
3. 불교와 관련한 일로 세종과 신하들 사이에 소모적인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세종은 신하들과 또 다른 소모전을 벌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백성의 편의 도모' 이다.**